

# 第1章 人物의 生成教育에 對하여

李鍾述(性理學者)

## 目 次

가. 有生以前の 일	3) 黃金時代
1. 父母의 條件	4) 幼兒期教育
1) 形氣	5) 學동기 教育
2) 心性	6) 사춘기 教育
2. 生成二世	(1) 過去 現在 未來의 一貫繼續
3. 聖人難生	(2) 立志
나. 有生以後의 일	(3) 示範教育
1. 胎敎	(4) 眞理探究
1) 胎敎의 意義	(5) 價値觀의 定立
2) 胎敎의 方法	(6) 交友
다. 出生以後의 일	(7) 良書
1. 嬰兒期教育	(8) 溫厚鄭重
1) 理想的인 人間型	(9) 健康指導
2) 敎育方法	(10) 衣食之艱

## 가. 有生以前の 일

廣漠杳冥한 宇宙 日月星辰 天體地球며 그 사이에 棲息寓居하고 生滅存亡하는 一切萬物은 來去가 있고 始終이 있고 本末이 있고 內外가 있으니 그 어느 하나도 因果法則의 領域에서 離脫할 수 없다. 그러나 이 因果는 有始有終과 無始無終의 兩側面을 具有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二而一 一而二의 無窮한 妙味로서 止揚統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天地萬物體는 有始有終하기도 하며 無始無終하기도 하며 有而無 無而有의 有無一貫의 體用一源 顯微無間한 것이니 이는 個體이건 渾融全體이건 그렇다.

人物의 始生原을 저 海底深層의 아메바에서 찾으려는 生物學的 說明이나 進化論은 形而下的 科學的 有始有終說이리니 어찌면 天地開闢이니 創造니 輪廻니 하는 哲學的 宗教的 이야기와도 窮極의 通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有始有終한 天地萬物은 永遠할 수 없고 斷絶의 空無가 없지 못할지니 어찌 이것이 造化自然의 眞實相이겠는가. 空無는 空無로서 獨立의 것이 아니고 有에 對한 有의 속에 相對的으로 存在하는 것일 때 可能한 것이며 보다 더 世界를 달리하여 形而上의 所以然之理가 相對性的 世界를 所然케끔 하는데서 우리는 眞正한 無始無終을 體認한다. 따라서 唯氣論의 世界觀은 偏頗的 欠陷을 가져오는 誤謬가 아닐 수 없다.

儒學은 理氣의 存在를 말하고 生生不窮하는 氣化와 形化를 舉說한다. 人物의 生成變化가 理

氣의 所能일 때 그것은 太極의 肇判도 陰陽動靜의 循環無端도 그 眞諦를 드러내는 것이며 論理의 明證性도 窺見할 수 있다. 따라서 一偏的 側面만의 理說로는 全貌를 通達하지 못한다.

周濂溪(1017~1073, 名은 敦頤, 字는 茂叔)의 太極圖說에 「無極之眞과 二五之精이 妙合而應하여 乾道成男하고 坤道成女라 二氣交感하여 化生萬物하고 萬物生生하여 而變化無窮焉이라.」고 하여 氣化와 形化를 말하였고, 朱子(1130~1200, 名은 熹, 字는 元晦, 號는 晦翁 또는 晦庵 紫陽 考亭)는 太極圖說解에서 「人物之始에 以氣化而生者也오 氣聚成形則形交氣感하여 遂以形化而人物이 生生하여 變化無窮矣라」고 하였으며, 平巖葉氏(名은 采, 蔡淵과 陳淳에게 易을 배움)는 「繫辭에 天地絪縕하여 萬物化醇은 氣化이고 男女構精하여 萬物化生은 形化이니 圖說은 대개 此에 根本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無始無終 循環無端하는 動靜陰陽의 二氣와 太極의 眞理가 妙合하여 一分爲二 二分爲四 四分爲八한다는 邵康節(1011~1077, 名은 雍, 字는 堯夫, 號는 康節先生, 易學大家)의 말이나, 所謂 加一倍法이라는 程明道(1032~1085, 名은 顥, 字는 伯淳, 明道는 號)의 말과 같이 流行하는 過程에 있어서 凝聚成質하여 乾坤男女之道와 男女之象을 分別成就하는 氣化를 이루고 이 二氣가 交感하여 化生萬物하는 形化를 이룬다는 말인가 한다.

이렇게 볼 때 氣化와 形化는 兩個를 이루어 分別되거나 間斷하는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一氣貫通의 流轉變化中에 隱顯明滅하는 듯한 有形無形의 一而二 二而一의 相關關係로 보여지는 것이다. 다만 兩者를 理氣의 論理에서 보면 이와 같지만 現象의 側面에서 보면 氣化의 無形이 形化의 有形으로 된 것이므로 一旦 形化를 이룬 뒤에는 同一種類的 同一地域에서의 生生은 오로지 形化에 依할 뿐 氣化는 다시없다. 그리고 形化된 形象은 天地의 理氣를 載具하는 器機이니 만큼 同氣相求하는 原則에 따르는 適否의 問題와 稟賦傳承의 順逆離合 등의 關鍵이 되리니 여기서 形化의 根源인 父母가 問題로 登場하게 된다.

## 1. 父母의 條件

朱子는 中庸章句에서 「天以陰陽五行으로 化生萬物할새 氣以成形하고 而理亦賦焉하니 猶命令也라 於是에 人物之生에 因各得其所賦之理하여 以爲健順五常之德하니 所謂性也」라고 하였다. 이 말이 갖는 意味는 平易하지만 多樣하고 깊다. 여기서는 天이 人物을 理氣로 化生하는 側面과 人物이 形器에 天之理氣를 承受하여 載具하는 側面이 어떻게 關係되는가 하는 것만을 簡單하게 살펴보겠다. 理一氣二 在天之理는 一이고 氣는 二이니 人物에 있는 理氣도 또한 이와 같다. 理는 天人인 共히 一임으로 問題가 될 것이 없고 氣는 有萬不同이오 無不兩者이니 天人之氣가 모두 그렇다. 天은 無心自然하므로 造化流行에 있어서 理를 順從하지 않음이 없으나 人物의 相對世界는 有心作爲하며 從的인 流行 外에 橫的인 對立을 露呈하여 善惡叔慝正邪消長の 相互生滅하는 極限에 마저 이른다. 이에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의 말이 나오고 理에 順하는가 逆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天에서 보면 宜當 賦與해야 할 氣를 命하였지만 人物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를 堪當順應하느냐 못하느냐의 問題와 同時에 人物自我器具의 美惡偏全으로 困하여 天命이 適宜하게 差異있이 賦稟된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이상의 두 가지 問題는 結局 人物의 器具如何에 따라 天命을 能히 承當하여 本然을 다하느냐 못하느냐 하게 되고 亦是 良好한 器具는 淸粹한 氣質을 應受하고, 醜惡한 器具는 濁駁한 氣質을 應受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則 淸粹한 氣質은 淸粹한 氣를 받아 順行하고, 濁駁한 氣質은 濁駁한 氣를 받고 淸粹한

天命의 本然은 堪當遂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天命으로 化生되는 萬物이 形化하는 萬物의 形象器具로 天命氣化를 繼成承載한다는 妙合의 機微를 생각할 만하며 形生母體인 父母의 重要性을 確認하였다. 完全至好한 父母는 어떠한 像일까?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이를 形氣와 心性の 두 側面으로 살펴보려다.

### 1) 形氣

氣質이 淸粹하고 健康하며 體力이 強靱하고 形貌가 端正하며 厚重하든가 俊秀하든가 各其 適合한 格局을 形成하여 聰明睿智스럽고 富貴壽命을 兼全할 多福相을 理想型으로 삼는다.

### 2) 心性

氣質이 純粹淸明하여 拘碍됨이 없고 物慾이 交蔽하지 않으며 萬理具明하여 生知安行의 資稟을 享有하였으며 過化存神의 無聲無臭之德을 具存한 사람을 또한 至極한 것으로 삼는다.

形氣와 心性を 兩全한 사람이 理想的인 사람 卽 聖人이다. 形氣가 千差萬別인 것처럼 心性의 等級 또한 無限定의 層數를 이루고 있다. 形氣와 心性是 相互符應하는 것이 原則이나 例外가 있어 形氣는 長한데 心性이 短하기도 하고 心性은 長한데 形氣가 短할 수도 있으니 形氣나 心性 그 自體만으로도 各其 參差不齊한데 二者를 綜合通觀함에 있어서 이겠는가. 聖人도 兩全하기 어렵거든 하물며 衆人의 層差야 일러서 무엇 하겠는가. 비록 聖人도 兼全할 수 없고 缺陷이 있는 것이라면 오직 天命은 一定不變 無可奈何라는 말인가. 그러나 運命이란 決코 不變의 宿命的 結果論만으로는 成立되지 않으니 마치 大道가 隨時變易以從道인 것처럼 可變의 當爲論이 있음으로써 不變이 不變일 수 있는 법 亦是 一而二 二而一의 統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李栗谷은 所著 「擊蒙要訣」에서 「人之容貌는 不可變醜爲妍이며 膂力은 不可變弱爲強이며 身體는 不可變短爲長이니 此則已定之分이라 不可改也어니와 惟有心志하얀 則可以變愚爲智하며 變不肖爲賢이니 此則心之虛靈이 不拘於稟受故也니라.」 하였다. 이는 形質化된 身體的인 것의 不可變性和 虛靈不昧한 心志는 本來 氣質에 拘碍되지 않으므로 人間의 修爲努力에 依하여 智賢에 到達할 수 있는 可變性を 말한 것이다. 그러나 身體的인 것도 修鍊養生에 따라 可變이며 心志도 不變의 拘碍點이 없는 것은 아니니 앞서 말한 一而二 二而一의 妙理의 밖의 것이 아님은 勿論이다. 不可變의 身體도 可變性이 內在하거든 況 可變의 心志이겠으며 聖人도 不可變의 欠陷이 있거든 況 凡夫이겠는가. 여기에 人生은 훌륭한 父母가 되기 爲하여 良子를 欲望하기에 앞서 自己人格의 完成을 힘써야 한다.

## 2. 生成二世

氣質의 淸粹와 心志의 虛明의 聖賢資稟에 積善人同의 至誠大德을 存得한 父母는 龍生龍 鳳生鳳의 말과 같이 自身에 相應하는 子孫을 두어 마땅하다. 그러나 이 亦是 不一致의 境遇가 많다. 微細한 部分의 差異는 且置하고 大體的인 것에 나아가 보아도 그렇다. 例컨대 瞽叟의 惡으로도 聖人 大舜을 낳았고 鯀의 凶으로도 禹를 낳았으며 堯·舜의 聖으로도 丹·朱의 不肖를 낳았고 孔子의 至聖으로도 得位와 得壽를 못하였으며 顏子의 亞聖으로도 夭死하였으니 말이다. 왜 不一致하는가? 이제 그 理由를 揣摩하여 보면

1) 父母의 不一致니 아무리 文王之聖이라도 后妃의 德을 만나기는 어려우니 丹·朱의 母가 堯·舜같지만 못하였기가 쉽다.

2) 男女構精과 天地의 遊氣가 一致하기는 어렵다. 大概 天地의 風氣는 盛衰消長이 있으니 堯舜은 運氣盛時에 誕生되고 孔子는 衰退時에 誕生하였다. 天地의 沖和中氣와 男女의 精氣가 遇合極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3) 一夫一妻는 眞理이니 따라서 男女는 平等的 貞操義務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男女夫妻의 사이에서 良子가 誕生된 것은 不言可知이다. 그것이 母系社會이건 父系社會이건 原則이니 例外가 있다한대도 價値性은 없다. 그러므로 이 原則外에 不得已한 狀況이 容忍된다 하여 原則이 될 수는 없다. 어찌 어떠한 形態로이든 一夫多妻와 一妻多夫가 眞理가 되겠는가, 어찌 童男童女의 純精이 美德이 아니며 得已의 離婚이나 奔婚이 福이 될 수 있으랴. 이것이 또 크나큰 不一致의 하나가 되지 않을 수는 없다.

### 3. 聖人難生

아무리 天地의 中氣가 몇百年 몇千年 몇萬년에 한번 온다하여도 이것을 담을 만한 父母라는 器具가 없거나 反對로 훌륭한 器具가 있다한대도 中氣의 合致없이는 誕生되기 어려운 聖人임은 以上の 論述만으로도 알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有生以前 乃至로는 有生以後로 이어지는 過接關頭라는 上下의 機微處로 말한 것뿐이요 이것으로 聖人誕生의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有生以後에도 有生以前에 이어 重要하니 天地의 中氣와 無極之眞을 盛載하는 것은 實地로 胎兒에 있으니 어찌(역시?) 繼續的인 管理養成이 須要된다. 더욱이 이는 優善者는 그 善良한 種子와 肥沃한 田地에 適時播種된 것을 損傷되지 않고 本然대로 養育하여야 하고 劣惡者는 改過遷善 漸積修德 誠敬을 다한 人工의 極致로써 天工을 回致하는데 힘써야할 것이다.

## 나. 有生以後의 일

胎兒가 生命體임이 分명한 以上 父의 陽氣와 母의 陰氣가 呼吸作動하고 있으리니 어찌 父母의 氣가 感應誠通하지 않으리오. 비록 胎兒가 母體內에 있다하여도 父의 氣가 神通妙用하고 있는 이상 어찌 父德如何의 影響이 없을 수 있으리오. 母體는 胎兒의 寄宿主이니 地道也며 坤道也니 飲食衣服이며 起居坐臥와 存心養氣가 親著不離하니 心身兩面을 保護長育하는데 緊切함이 어더하리오.

### 1. 胎教

#### 1) 胎教의 意義

胎教는 必要한 것일까? 果然 어떠한 效果가 있을까? 앞서 緒頭에서 胎兒는 父母의 精血氣質을 받았으므로 그 形貌나 心性이나 呼吸이며 氣血의 循環 등 相似한 꼴이 아닐 수 없으니 이를 미루어 볼 때 어찌 脈絡相通하고 感應神通하는 微妙함이 없겠는가. 父子의 氣脈이 同體一原의 意味가 있는 以上 父母의 體質과 情緒의 正邪善惡 등 全般에 걸쳐 어찌 不可分의 影響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는 當然한 것이 아닐까 싶다. 더욱이 教育이란 知識의 傳授라는 單純한 機械的인 것도 있지만 德性을 涵養하는 人格形成이라는 全人的인 部門도 있다. 勿論 이 兩者가 表

面上으로 또는 어느 程度까지는 全然 無關한 別個의 것일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窮極的으로는 一而二 二而一의 相貫性에 依하여 不可分의 境地에 沒入하지 않고는 못 견뎌나. 萬若에 이러한 말이 肯定된다면 教育이 어찌 機械的 表面的인 것에 그칠 수 있을까. 보다 裏面的 薰陶的 自然 德化에 依하여서만 참다운 效果를 얻지 않을까. 듣건대 教育은 早期에 할수록 效果가 있고 天地의 化育은 無言中에 遂成되며 그 目的이 誠直하고 正當한 知行兼全의 人格完成에 있다면 어찌 胎敎의 效果를 疑心하리오. 하물며 父母의 言語行動이나 衣服飲食이며 心思善惡등 一切의 것이 그대로 胎兒의 肌血이 되고 雰圍氣를 造成하여 父母가 天地의 位置와 같으리니 어떻게 萬物이 天地에서와 같이 胎兒가 父母에 있어 影響됨이 없으리오. 아니 그 效果야말로 確實하고 至切하다 하겠으니 胎敎의 意義는 正히 크다.

## 2) 胎敎의 方法

胎敎를 말한 것은 아마도 오직 劉向(B.C.77~B.C.6, 字는 子政, 前漢의 學者)의 編著인 列女傳에 보일 뿐인가 한다. 이제 小學(書名, 朱子의 編著)에 引用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列女傳에 曰古者에 婦人이 妊子에 寢不側하며 坐不邊하며 立不蹻하며 不食邪味하며 割不正이어든 不食하며 席不正이어든 不坐하며 目不視邪色하며 耳不聽淫聲하고 夜則令擘로 誦詩하며 道正事하더니라 如此則生子에 形容이 端正하며 才過人矣리라.」

위에서 말한 것을 要約하여 보면 起居坐臥등 動作을 바르게 하고 飲食을 모양이 반듯하고 法度있이 만들고 맛은 五味중 平淡正常하게 料理하여 먹으며 視聽은 邪惡한 色相이나 淫亂한 聲音을 멀리하여 閑邪存誠토록 하며, 밤이면 端正하고 純一한 擘(옛적에 대개 樂을 관장하였음)로 하여 금 二南(周南과 召南)과 같은 和樂中正한 內容의 것을 講誦하게 하여 邪穢殘滓를 自然스럽게 蕩滌함으로써 中心을 順平하도록 하며 二典(堯典과 舜典)과 같은 治人處物의 經常大法를 稱道하여 夜氣를 存養함으로써 本然의 根基를 鞏固히 한다는 것이다.

이는 心身內外를 相互須資的으로 기르는 것이니 비록 現代의 醫學上으로 하는 疾病治癒의 藥物이건 營養攝取이건 一切의 것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데서 오히려 規制하고 勸獎하는 등 널리 包含한다고 하여 過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推理할 때 一切의 科學的管理도 또한 胎敎의 一部를 이루고 있는 것이 되리니 本來부터 當然히 講究되었어야할 問題이다.

胎敎를 잘하면 出生兒의 形容이 端正하고 才質이 다른 사람에 지나간다고 하였으니 이는 天地環境에 따라 生物의 大小長短과 美醜善惡이 相異하다는 緒論에서의 論理에 다를 것이 없으니 너무나 當然한 結果이다. 有生之初에서부터 10個月동안의 胎敎는 出生以後의 教育으로 繼續되며 平生教育과 修養의 基幹으로써 一貫되어 마땅할 것이다.

## 다. 出生以後의 일

胎兒가 出生하면 完全히 獨立된 形體를 所有한 主體의 人格의 存在이니 이제까지 하여온 胎敎의 根本精神인 誠敬과 正直으로 天性을 保存涵養하고 氣質을 變化하되 至德感化를 爲主로 한 方法은 그대로 繼承持續되어야 하겠지만, 이제는 보다 直接的이고 實體의이며 能動的인 轉換이 있을 뿐더러, 欲求不滿이 있으면 感覺的으로 喜怒哀樂의 情을 發하게 됨으로써 物欲이라는 새로운 世界가 展開하였으니 教育方法도 훨씬 複雜多樣해지지 않을 수 없다. 則 物欲 하나

만 가지고 말하여도 胎敎에서는 父母의 模範으로 自然消融되는 方法이었지만 이제는 直接 除去 防止等 勸懲으로써 하는 일도 添加해야 한다는 點이 있는 것이다.

出生에서 3세까지를 嬰兒期라하고 4세에서 6세까지를 幼兒期라 하고 7세에서 14세까지를 學童期라하고 14세부터 16세까지를 思春期라고 현대의학에서 區分하고 있다. 그리고 幼兒期를 性格形成時期로 하고 學童期에서 思春期를 性格固定時期라고 한다.

이는 朱子の 大學章句序文에서 말한 「人生八歲어든 則自王公以下 至於庶人之子弟히 皆入小學」이라고 한 것과 明의 吳訥은 그의 小學集解에서 亦是 「人生八歲어든 皆入小學」한다 하였으니 지금의 國民學校生徒의 入學年齡과 비슷하고 <大學>을 배우는 15세는 國民學校를 卒業하고 中學에 入學하는 時期와 비슷하므로 大體로 그대로 따른다.

그런데 여기 하나 年齡算出에 있어 東洋은 胞胎서부터 시작한 것 같으니 보통 우리말로 세는 나이라 하고 西洋式은 出生을 起點으로 하여 出生日이 돌아와야 一年으로 하니 이는 滿으로 따지는 것이다. 兩說은 各其 見解의 差異에서 오는 것이라 굳이 長短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서는 胎敎를 말하였으므로 東洋式을 따랐다.

### 1. 嬰兒期敎育(1~3세, 第1期 性格形成時期)

嬰兒期는 1세서 부터 3세까지를 이르는데 1세는 이미 胎兒敎育으로 充當한 것이 됨으로 結局 2세와 3세의 敎育에 대하여 論究해 보겠다. 小學에 引用한 「內則(禮記의 篇名)에 曰凡生子에 擇於諸母와 與可者호대 必求其寬裕慈惠溫良恭敬慎而寡言者하야 使爲子師니라.」 하였으니 胎敎를 지나 子女가 出生하면 親母以外에 父의 衆妾인 庶母(昔時의 一夫多妻時의 逆天理之事이므로 取할 수 없다)나 또는 乳母中에서 度量이 寬大하고 餘裕있어 窘迫하지 않으며 慈祥하고 恩惠스러우며 溫和하고 易直하며 外貌動作이 恭順하고 中心이 平常純一하며 言行을 謹慎하여 말수가 적은 사람 則婦德이 純正兼備한 사람을 선택하여 구해서 子師의 保傅을 삼는다는 말이다. 朱子도 「一歲에 有一歲工夫」라고 하였다. 以上 內則의 凡生子나 一歲工夫가 있다는 말은 出生後 바로 敎育을 한다는 意味의 말일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胎敎를 이어 間斷없이 施教한다는 解釋도 缺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擇於諸母는 옛적에 돈 있고 벼슬아치나 王侯貴族따위들의 호강스러운 짓구지인 듯도 하니 이는 大衆的인 것이 못되고 倫理를 拒逆하는 者들의 蠻行이라면 禮節도 敎育도 될 것이 없다. 다만 一夫一妻인 親母一人의 子師로서의 德目을 取用하는 것뿐이다.

出生以後의 人間敎育은 너무나 重要하고 神聖하니 果然 어떠한 사람이 되도록 어떠한 方法으로 누가 어느 때 해야 하는가? 하는 至難한 障壁에 부딪힘을 느낀다. 그리고 1세에서 15세 까지라고 하나 實은 1~3세의 영아기가 또한 根基가 되는 最重要한 時期라고 여겨지므로 本項에서 이것을 밝혀보려 한다.

#### 1) 理想的인 人間型

人文科學이나 自然科學등 學問의 分野며 士農工商등 職種部門등 各其 特殊分野로서의 部分的인 人間型의 理想은 各樣各色일 것이니 이는 形而下의 現象的 具體的인 것이므로 그렇다. 그러나 人格을 完成하는 全人敎育은 이와 달라 人間의 本體를 찾고 이를 知行하는 일을 다루는 것이니 自然 形而下의 世界를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推理하고 超越하여 根源을 더듬어 探索해

내는 形而上的 抽象的이며 總體的으로 綜合된 價値를 찾는 것이다. 이 形而上·下의 두 개의 部門은 本是 一而二 二而一의 關係에 있는 것이니 根本과 技末의 그것이다. 卽 心性이 純粹하며 聰明專一하지 않고서는 形而下的 知識을 完成할 수 없으며 反面 形而下的 知識이 完成되면 形而上的 人格도 相互照應되는 것이다. 다만 知行問題에 있어서만은 形而上的인 것은 直接的 實體的 實驗的인 面에서 科學的方法의 趣向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보다 物理的인 境界를 超克하는 價値的次元이라는 特異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人間의 人格形成이란 形而上·下의 兩面을 兼修하는 것이지 決코 跛行的으로 可能한 것은 아니지만 綜合的 窮極的인 形而上的本體가 主本을 이루는 속에 形而下的 實體的 兼修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理想的 人間이란 어떤 型일까? 그것은 一言以蔽之하여 仁義禮智信의 天命本然之性を 完全具備하고 稟受的이든 後天的이든 氣質이 清明純粹하며 不惑과 知天命·耳順·從心所欲不逾矩의 孔子境地에 到達한 사람이다. 이것을 現實的 具體的으로 分析하여 보면 慈愛性·義理性·正直性·謙讓·恭敬·聰明知能·自主獨立·積極·堅忍·探究·協和·責任感·遵法精神·安定感·誠實·信用·道德·勤勉·寬容·忠孝·儉約·純潔·廉恥 等等 理性的 善德을 갖추고 있으며 또 이에 反할 感性的 缺陷도 가지고 있다. 어린이는 이러한 素性を 本來的으로도 具有하고 있으니 이 善德을 얼마만큼이나 鑠傷하지 않고 長養하여 장차 聖賢卽理想的 人格者가 될 所謂 聖賢杯堊을 培養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에 올바른 教育을 實施하지 못하면 暴惡하고 僞詐하며 不安放荒하는 등 歪曲된 人間을 만들게 될 것이다. 여기에 當然히 教育方法이 문제된다.

## 2) 教育方法

理想型的 人格을 形成하는데 第一 먼저 문제되는 것은 教育者인 父母의 人格이다. 父母의 人格이 圓滿至善하면 그런대로, 偏倚卑屑하면 또 그런대로 影響을 주어 漸積形成되지 않을 수 없다. 父母의 人格에 對하여는 前項의 理想的 人間型과 胎教欄에서 試論한 父母의 條件으로서 足할 것이므로 이의 重複을 피하겠다.

이와 같이 父母의 나아가 家族全體의 一言一動이나 一思一念이 天地의 造化功用이 春生夏長 秋收冬藏하듯 氣化流行하는 霧圍氣를 形成하게 되며 어린이는 이 기운을 呼吸하고 吞吐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性格을 築造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다면 教育者인 父母는 果然 어떠한 마음씨로 어떻게 養育形成할까? 이제 그 重要的 方法이란 또한 異常別件物事일 수도 없으니 첫째는 誠實한 마음씨와 愛敬을 至極하게 하는 것이다. 어느 누가 제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며 誠意를 다하지 않겠는가? 하겠지만 誠實하다 해서 明覺을 土臺로 하지 않으면 盲目的인 妄想에 陷溺하는데 이르러 誠實다운 誠實이 되지 못할 것이다. 勿論 至誠이면 感天이니 하는 말이 있고 大學에도 心誠求之하면 雖不中(어린이의 뜻대로 맞는다는 뜻)이나 不遠矣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이대로 合理的 最善의 誠心을 말하는 것이니 어찌 저 秦始皇의 三神山 不老草를 求하듯함을 이르리오. 다음은 愛敬이니 사랑과 公경이란 본래 마음에서 自然스럽게 우러나는 것이지 故意로 作爲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도 한갓 感覺的 動物的인 限界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진정은 다한 것 같지만 실은 진정을 못 다한 것이 되므로 結果는 邪惡이나 慾望을 滋長하여 주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참사랑이란 어진 싹을 자라게 하고 악한 뿌리는 제거되도록 명확한 眞理觀과 判斷

으로 適切中和의 勸善懲惡之道를 다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舐犢之愛나 婦人之仁을 君子는 仁愛라고 이르지 않는다. 恭敬은 잘못하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外制的操心作意的인 것으로 알게 되기 쉽고 기껏해야 存乎中者가 發於外이지라는 已發之情에 依據해서 溯推하는 形式에 不過한 것 같다. 그러나 公敬의 發源은 實로 사랑에서 또는 사랑과 함께 原生하는 것이니, 이는 愛란 愛惜하여 아끼는 것으로서 사랑하는 상태를 내 몸 못지않게 사랑하고 사랑은 아끼고 아끼는 정은 오랫동안 보존하려고 소중하게 하나니 이 어찌 사랑이 尊敬하는 것이 되지 않으리오. 어린이를 다칠세라 보호하는 것이 어찌 公敬하는 것이 아니리오. 公敬이란 語句는 決코 君父나 長上에 대해서만 쓰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나 어린이는 純粹하고 天真爛漫하여 神聖한 存在라 어찌 世波에 汚染된 凡夫의 尊敬할 바가 아니리오. 況 赤子之心의 天機流行하는 自然之妙가 참으로 이 鳶飛魚躍의 活潑若如한 機括 바로 그것이니 어리다하여 侮慢은커녕 실상 成人父母가 배워야할 것은 얼마든지 있음에랴! 誠實과 愛敬이 이러한 意味를 含有하고 있을 때 그것은 이미 天人一貫의 眞理意識 卽 그러한 規範이 어떤 質料的 形態를 本有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筆者는 이런 것으로 大略하여 正直과 中和之道를 든다. 어린이는 솔직하고 明朗하며 直線的이고 固滯하지 않아 天地中和氣象에 渾然無間하니 어찌 이러한 天賦成性を 損傷하리오. 그러므로 正直中和之道를 배우고 毀損害養하지 않는 意味에서 가르쳐야할 것이다.

以上 誠實 愛敬 正直 中和는 어린이의 性格을 形成하여 주는데 있어서 가장 天理에 合當하며 根源的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 네 가지 德을 내 마음에 갖추어 나와 하나가 된 體에서 自然發見하는 用이 實際로 事物上에 流行하여 어린이의 本有天德을 存養하며 氣質의 未洽한 點이 있으면 이를 變化하여 四德에 合致하고 本然之性에 回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 하나 더욱 重要的한 것이 있으니 다름 아닌 德이다. 不賞而民勸하고 不怒而民威於 鈇鉞하는 盛德이 아니면 四德도 徒然히 行해지지 않을뿐더러 決코 充分的 效果를 올릴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글 좋은 말을 가지고 한대도 어린이는 올바른 성격을 德없는 말이나 글에 끌려 形成하지는 않는다. 德의 威力은 神通四達하여 天地鬼神도 感應하나니 어찌 善德이 없는 자가 相對를 教化成德게 할 수 있으리오.

### 3) 黃金時代(영아기 1~3세, 제1기 성격형성시기)

1세에서 6세까지를 性格形成時代라고 區分하였으니 이야말로 人生 一平生의 運命을 左右하는 教育을 함에 있어 가장 適合하고 가장 重要的한 時期라고 여겨지는데 이 亦是 다름 아니라 心性情을 떠난 人間이란 想像할 수 없기 때문이다. 普遍的 基礎性格을 鞏固하게 築造하는 속에 個性的素能이라고 할 特殊性格의 美化發揚이 없이는 如何한 學問도 技能도 事業도 應分の 成功을 期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앞서 말한 方法에 依하여 이러한 性格을 形成한다고 할 때 果然 어느 때가 가장 效果的일까? 라고 생각하여 보면 亦是 嬰兒期인 것만 같다. 왜인가 하면 이때는 感受性이 가장 銳敏한 反面 아직 現實的으로 어떠한 先入爲主의 意志나 主張이 없기 때문이니 甘受和 白受采라 어린이의 受容이 어찌 迅速하고 正當하며 全幅的이 아니겠는가.

우리 古語에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니 이 얼마나 한 至言일까. 아마도 분명 우리의 先人들이 經驗하여 얻은 教訓이리라. 3세 그것도 어찌면 性格形成의 最大限度線을 말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나 實은 3세도 오히려 2세나 1세 때만 못한 것 같기 때문이다. 어릴수록 純眞하게 보이는 것은 3세가 되는 동안도 벌써 잘못 가르쳤기에 그런 모양이다. 程子は 「小學之法은 以豫爲先」이라 하고 또 「及幼而教之易」라고 하였으니 이는 비록 「自能言能食而教之」라고 하여 3세 이상의 어린이를 뜻한 것도 같지만 미리한다는 豫字와 幼時에 及한다는 말은 要컨대 早期教育을 뜻하는 것이니 적어도 영아기 교육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는 말은 못하고 행동만을 하므로 이를 教育함에는 難易點이 있을성싶다. 이러한 問題는 教育的 心理學的 醫學的 等등 身心兩面에 亶하여 總淸으로 深廣한 研究가 있어야 말할 수 있겠으나 寡聞한 筆者는 力不足이라 오직 一偏之見을 들어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을 言及하려 한다.

어려운 點이란 言語가 不通하므로 意思交換으로서 相互間 外表에 나타나는 形容動靜에 依해서만 可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細密周備한 觀察力이 있어야 하리니 마치 한포기의 식물을 가꾼다고 할 때 그것의 빛깔 모양 동정을 본다든가 한 동물을 기를 때 그 침식과 목소리 형태 감정표현 등을 살펴서 이 동물은 지금 무엇을 要求하고 있나 무엇을 除去하기를 원하는가 어디가 아픈가 지금 즐거워하나 괴로워하나 등등 일체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쉽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린이의 感受性이 敏捷하고 正確하며 率直하여 읽기가 까다롭지 않으며 天真爛漫하여 아무런 私邪나 固滯不化가 없어 마음이 明鏡止水如하다는 점 등이다. 筆者는 어린이를 잘못한다고 꾸짖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언제 꾸짖음을 받았느냐 싶지도 않게 웃으며 전과 같이 달려드는 모습을 接할 때 不知中 조금 전에 꾸짖었던 생각이 일어나자 금방 잘못된 놈이 「뭘 이래 미워」 하면서 그의 반기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 순간 電光石火같이 나의 未達을 느끼며 오! 순진한 어린이야 너는 참 善意에 차고 默契天心하는구나 훌륭한 나의 선생님이여! 하고 안아주며 은근히 존경한다. 이 얼마나 배워야 할 것이며 가르치기 쉬운 것일까? 더욱이 그의 즐거운 마음을 손상시켜 주는 것을 생각할 때 所謂 情緒障礙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形成하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배우며 가르치고, 가르치고 배운다느니 그르쳐주지나 않는 것이 최대의 教育공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려운 점 쉬운 점을 말하였으나 이는 도로 하나로 統會되나니 觀察力의 周徧이라는 어려움이 理事物心에 亶하여 該博深奧한 知識 格物致知의 眞知가 要請된다. 하지만 博文은 約禮와 相互須資하여 知行兼全의 一貫之道에 到達乃成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由乎中而應於外의 一心之德이 主靜에 依하는 것인 만큼 渾融一源이 되는 것이다. 비록 여기에 未達한 父母라 한대도 心誠求之하며 明明德工夫에 從事함으로써 영아교육의 어려움은 그것이 도리어 쉬움이 되고 쉬움이 도리어 어려움이 되는 一元會統이 아닐까 한다.

#### 4) 幼兒期教育(4~6세, 제2기 성격형성시기)

胎敎에서부터 시작하여 6세까지를 性格形成時期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 早期教育을 해야 效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性格形成의 目標가 되는 性格自體의 骨子是 仁義禮智信의 本然之性을 本然대로 將養育成하여 仁慈하고 義理에 차있으며 禮儀秩序精神이 서서 歪曲되거나 錯揉邪慝之知가 아닌 公然平正의 眞知가 밝으며 信實誠直 正堂平常하도록 함에 있으며, 그 工夫로서 氣質의 變化와 物慾己私의 克去등 格致誠正의 順致漸積의 努力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性格形成을 爲하는 工夫는 어느 意味로는 有生과 함께 시작하여 한평생동안의 일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니 일찌감치 한다는 것은 보다 效果的이고 基礎的이라는 데 있을 뿐인가 한다.

3세 이전의 教育은 주로 本然의 純粹한 心性을 外的으로 鑠傷하지 않고 保存長成하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그 方法은 自然 德化誠感에 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3세가 지나 6세가 되는 동안은 飲食 言行 要求 拒否 喜怒 好惡 是非 등 理解며 知覺作用이 順次的으로 發達하게 되므로 教育의 內容이나 方法 등이 多邊化하지 않을 수 없다. 제1期の 性格形成教育을 바탕으로 그대로 繼承存持되면서 보다 現實的 直接的인 것이 된다. 內則에 子能食食어든 教以右手라 하였으니 3세정도의 어린이면 대개는 손가락을 잡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때 右手를 쓰지 않고 左手로 잡거든 右手를 사용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이며, 能言이어든 男唯女俞라 하여 應答할 때 男兒는 씩씩하고 速하게 하며 女兒는 溫順하고 柔緩하게 가르치며, 男擊革이오 女擊絲라 하여 男兒는 가죽띠 女兒는 실띠를 매도록 가르친다 하였으니 이는 陰陽剛柔의 本然의 理氣에 相應하는 教育을 말한 것이고 男女 共히 右手를 使用하게 한 것은 바르게 가르침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말은 처음부터 教育을 本然의 理氣에 相應하게 하고 正當하게 한다는 뜻이니, 아직 잘못되기 이전에 가르친다는 것과 잘못되면 즉시 矯正하여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6세가 되면 一十百千등의 數와 東西南北 등 방위의 이름을 가르친다고 하였으니 이는 性格보다는 知的 教育에 들어갔음을 알려주는 것인가 한다.

아무튼지 이와 같이 제2기의 성격교육은 一期教育方法의 위에 또는 그 方法의 具體化라고나 할까 直接 言語行動을 使用하여 天賦之善을 保養하고 愛親敬長隆師親友 등 모든 善行善事善言을 積極的으로 하게끔 指導勸獎하며 天理를 拒逆하고 不誠不正不敬 등 惡行惡事惡言을 하면 誠心誠意를 다하여 그것이 그른 것임을 깨닫게끔 方法을 써서 알게 하고 懲戒를 適宜하게 하여 改過遷善케 한다.

더욱이 이 시기는 어린이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사랑의 受難時代라고 하니 동생을 보면 엄마의 품에서 멀어져야하고 사랑을 몽땅 뺏기게까지 되어 哀傷에 젖고 猜恨과 嫉妬心을 惹起케 되는 등 內的인 葛藤이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기 쉽고, 점차 밖에 나다녀 친구를 사귀며 놀게 되므로 善惡間에 莫大한 影響을 받는 등 外傷에 感染될 염려 또한 至大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가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됨을 생각할 때 여기서 筆者는 社會教育의 重要性和 國民性的 向上美化 없이는 全體와 個體의 相互須資的 關係가 있음을 勘案함에 혼자만이 할 수 없는 어린이 教育의 또 한가지 어려움을 痛感한다. 그러나 이 亦是 個個人的 努力으로 쌓아올리지 않으면 百年河清의 全體性이고 보면 어린이를 기르는 父母로서는 率先하여 이를 克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筆者는 어린이들의 노는 사회상을 가끔 유심히 觀察한 적이 있는데 대체로 이들은 남을 해롭게 하는 害他族과 남을 도와주는 利他族이 있으며 만나면 싸우는 鬪爭族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平和로운 協和族이 있으며, 자세히 보면 이중에는 誠直者 僞詐者 好惠者 略奪者 詞諛者 訐直者 仁慈者 殘忍者 寬容者 偏狹者 好勇者 暴惡者 自主者 依他者 指揮者 隨從者 등등 其間의 教育의 差異와 氣質의 相異性에 依하여 있을 것은 빠짐없이 갖춰져 있다. 이중에서 좋은 것은 칭찬하여 길러주고 나쁜 것은 꾸짖어 금지하고 방어할 것이나 그중에서도 첫째 적어도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과 誠正中和의 性格만은 반드시 形成하여 주어야 하겠으니 그것이 오로지 이 시기에 있다. 여기서 이루어진 성격이 학교교육의 직접적인 바탕이 되리니 이 얼마나 중요할까.

##### 5) 학동기 교육(7~15세, 제1기 성격고정시기)

家內家外의 幼兒期教育을 거쳐 直接 또는 幼稚園教育을 거쳐서 小學 卽國民學校에 入學한다. 이 시기는 大部分 性格形成이 이루어진 상태이니 이미 形成된 性格의 鍛鍊과 試驗으로 習熟固定化하여 人格을 完成하는 工夫를 하는 것이 학동기의 性格教育의 責務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性格의 基本이 아무리 形成되었다고 한 대도 性格教育은 繼續되니 則 學校教育에서 知行을 兼修함으로써 本然의 心性을 알고 행하며 이왕의 잘못을 깨달아 矯正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의 性格形成은 廣義로는 平生教育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다. 다만 그 矯正이 至難함을 느낄 때 우리는 早期教育의 重要性을 더욱 確認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性格教育의 側面에서는 學校教育이란 性格의 矯正教育이라고 하겠다. 이제 옛날의 小學教育은 어떠했는지 참고하여 보면

男女가 「7세가 되면 同席하지 아니하며 器皿을 한가지로 하여 飲食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男女의 有別함을 가르친 것이다. 여기 陰陽男女의 關係를 잠깐 살펴보면 陰陽은 各其 性格이 달라 陽은 陽끼리 陰은 陰끼리 類類相從하는 同質性과 陰은 陽을 陽은 陰을 敬遠하는 排他性이 있고, 反面 陽은 陰을 唱하고 陰은 이에 和하는 陰陽互引의 感應性이 있다. 이와 같이 陰陽男女는 分別性과 牽合性을 兼有하고 있어 分別과 牽合이 二性으로서 相互矛盾되는 것 같지만 實은 分別속에 牽合이 있고 牽合中에 分別이 있으니 分而別하고 別而分하는 一而二 二而一의 統一로서 當分而分 當合而合의 當然之理를 나타낸다. 則 男女는 當分而分의 分別이 確立되어야 當合而合의 牽合의 正當性을 가질 수 있다. 男女之正은 一夫一妻이고 如何한 理由이든 이것으로 始終하는 것이 原則이오 理想이다. 眞正한 分別이 있어야 眞正한 牽合이 있고 眞正한 牽合이 있어야 眞正한 分別이 있다.

여기 말하는 男女有別도 또한 이러한 意味에서의 分別일 것이요 그래야 한다. 萬若에 이러한 分別이 아니고 單純漠然한 分別이라면 蓄妾 등 一夫多妻 一妻多夫의 無分別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一夫一妻를 爲한 分別이라야 當然한 分別이 되며 正當한 牽合을 이룰 수 있다. 七세면 不同席이라면 原始時代의 人生生理가 地域이나 人種에 따라 陰陽相交의 遊戲가 있거나 아니면 男女之正을 爲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男女混淫을 막을 길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그리고 더욱이 이 分別은 兄弟姊妹 近親도 例外가 아니었으니 形氣爲主의 生活相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分別의 意味는 男女間의 混淫 등 一夫一妻之正을 지키고 이를 阻害할 일을 豫防除去하기 爲하는 分限에서 足하지 않을까 한다. 禮는 隨時變易하는 것이니 文明初創期는 七세 不同席이어야 했지만 文明時代 男女共參의 現世代에 와서는 앞서의 分限이 지켜지는 線에서 一夫一妻와 男女의 雙務的 貞操를 前提하는 分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理解되어야 할 것으로 여긴다. 또 이르기를

「8년이거든 門戶를 出入하거나 坐席에 나아가고 飲食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長者의 뒤에 하게 하여 비로소 사양하기를 가르친다.」고 하였다.

이는 出入과 飲食과 坐席 등의 例를 들어 모두 長者에게 謙遜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가르친 것이다.

「9년이거든 朔望이나 六甲등 날수 헤아리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였으니 지금의 이삼학년에서 가르치는 수학정도를 이르는 것인가 한다.

「10년이거든 書堂 따위에 나아가 학문을 가르치는 師傅에게 가서 배우며 外舍에서 거처하고 잠자며 六書와 九數를 배우며 의복은 너무 더운 帛 따위로 襦袴를 만들지 아니하며 禮는 처음 가르치는 방법을 따라 익히며 朝夕으로 어린이 禮儀動作등을 배우되 簡易하고 알기 쉬운 것을 청하여 학습할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10년 정도쯤 되었으므로 外傳에 나아가 居處 등을 함께하여 學問知行에 依한 教化를 받도록 하였으며 간단하고 實際的인 幼兒禮儀를 가르쳐 몸에 익숙하여 自己의 것이 되게 하였다.

「13년이거든 樂을 배우고 詩를 讀誦하며 詩經 周頌의 酌詩를 歌唱하여 이것으로 曲節삼아 文舞를 춤추고 15세의 成童이 되거든 周頌의 武詩를 歌唱하여 이것으로 曲節삼아 武舞를 춤추며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배울지니라。」 하였다.

이는 童子의 몸과 마음을 調和스럽게 가르치고 德을 기르며 才藝를 닦게 하는 것이다. 張子(1020~1077, 名載, 字子厚, 號橫渠, 著西銘·正蒙)는 이르되 「古者에 童子를 가르침에 먼저 舞로써 하는 것은 그 體質을 柔하게 하고자함이니 心下(마음이 純一無雜하고 泰然한 것, 驕亢激昂되어 沈靜하지 않은 것이 그 反對)하면 則 氣和(氣는 心之動靜과 容貌氣色 呼吸動息 등 一切를 이르며, 몸에서 풍기는 德氣 등 有感無感의 전 부임)하고 氣가 和平하면 體柔(柔는 無力을 이르는 것이 아니고 柔軟성이 있어 調和된 모습)하며 古者에 胄子(天子며 公卿大夫의 만아들을 이르니 이들은 官爵을 世襲하여 政事를 담당할 것이므로 특별한 교육을 한 모양임)를 가르치되 반드시 樂으로 하는 것은 그 體를 和하게 하고자함이니 學者는 志는 立하고자하고 體는 和하고자한다.」고 하였다. 射는 활 쏘는 것이니, 論語 八佾篇에 「子曰射不主皮, 爲力不同科, 古之道也」라고 하였는데 이는 儀禮鄉射禮에 「曰禮射不主皮」라는 말을 孔子가 引用하고 禮射의 正體를 밝혀 當時의 廢禮之狀을 탄식하신 것이다. 武射는 尙力하여 貫革으로 爲貴하지만 禮射는 射義의 말대로 「射者는 所以觀盛德也라」 하여 射者의 內志가 正하고 外體가 直하며 持弓矢를 또 審固하게 하면 射不貫革하여도 그 中的함을 取하며 따라서 設或 不中的하더라도 禮容만은 取할 수 있음을 이르는 것이라고 擴大推理하ୟ즉 하다. 그리고 御는 말을 모는 것이니 鳴和鸞등 다섯가지로 分類된다. 各各 法도가 있으니 王良은 옛적의 善御者 嬖亥를 태우고 사냥할 제 수레를 正法대로 모니까 한 마리도 못 잡고 詭道를 써서 모니 一朝에 10마리를 잡았다고 하며 自己는 小人和 함께 타는데 익숙하지 않으므로 共承을 要請한 趙簡子의 請命을 거절한다고 하였다. 또한 詩小雅 車攻之篇에는 「不失其馳하니 舍矢如破라.」 하여 御法之正의 致功을 말하였다. 이와 같이 射와 御는 六藝의 다른 것도 그렇지만 모두 德行을 바로 닦는 것이다.

「女子는 10세가 되면 쓸데없이 나다니지 아니하며 여자 선생님은 말씀을 공경하고 용모를 유순하게 하여 聽從하며 麻枲를 잡고 絲繭을 다스리며 紆紃(명주와 실띠)을 織組하는 등 女子의 事工을 배워 衣服을 이바지하며 어른들의 祭祀차림을 보살피 酒·漿(醕水 따위)·籩(대로 만든 제기)·豆(나무로 만든 제기)·菹(淹菜니 침채라고도 한다)·醢(肉醬)를 進納(어른에게 드림)하는 등 禮法에 따라 長者를 輔相하여 奠禮(신에게 드리는 제수 등의 예)를 돕는 것으로 가르칠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女德과 女事와 祭祀의 일을 가르침을 이룬 것이다.

「十有五年이 되거든 笄(男子의 冠禮와 비슷한 일로서 머리를 묶어 비녀를 꽂는 것)하고 二十이 되거든 시집갈지니 有故(父母의 喪을 이르는 말)하거든 二十三年이 되는 해에(3년상을 마친 후를 이룸) 시집갈지니라.」 하였다.

「聘則爲妻요 奔則爲妾이니라.」 하였으니 이는 禮에 따라 夫로 더불어 敵體된 것을 妻라고 하

고 六禮를 갖추지 않고 그대로 만난 것을 妾이라고 하니 妾은 接字와 같아 夫를 接見할 수 있을 뿐 配匹敵體하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妾의 非禮됨을 默認한 말이니 註에는 奔은 失禮가 아니라 다만 分位가 낮을 뿐이라고 明言하고 있다. 이는 一夫一妻를 害치는 것이라 當時의 狀況은 可笑롭기 짝이 없다.

「曲禮에는 曰幼子를 常視毋誑하며 立必正方하며 不傾聽이니라.」 하여 겨우 지각이 있음으로 부터 欺瞞하지 않고 설 때는 한 방향으로 바로 서게 하며 귀를 기울여 남의 말을 도적질하는 따위를 하여 듣지 않는 것으로 模範을 보여야한다는 말이다. 程子は 「이르되 幼子常視毋誑以上은 모두 聖人の 言動으로 가르치는 것이라.」 하였다.

「周禮(周公이 지은 周代의 官制 따위로 周家一代의 禮가 된다)에 大司徒(教官의 長)가 鄉(12500가가 鄉이 된다.)에서 三物(三事와 같은 말)으로써 萬民을 가르쳐(성공한 자가 있으면) 賓禮로 천거하였으니, 一은 曰六德이니 知智(是非를 分別함) 仁(私欲이 없이 溫和慈愛한 道理) 聖(聰明睿智하여 通達하지 않음이 없는 것) 義(義理, 斷制裁割하는 道理) 忠(天理 그대로를 身心 共히 다하는 것) 和(천리에 어그러짐이 없이 和合하는 것)요, 二는 曰六行이니 孝 友 睦 婣(이)(睦은 九族에 親하는 것이고 婣는 外親에 親하는 것을 이른다.) 任(朋友에 信義가 있는 것) 恤(憂患과 貧賤을 도와주는 것)이오, 三은 曰六藝니 禮(恭敬揜節하는 道理, 禮는 五禮가 있으니 吉禮 凶禮 軍禮 賓禮 嘉禮이다.) 樂(音樂이니, 雲門 咸池 大韶 大夏 大濩 大武 등 여섯 가지가 있다.) 射(白矢 參連 剡注 襄尺 井儀 등 다섯 가지가 있다.) 御(鳴和鸞 逐水曲 過君表 舞交衢 逐禽左 등 다섯 가지가 있다.) 書(象形 會意 轉注 指事 假借 諧聲 등 여섯 가지가 있다.) 數(方田 粟布 衰分 少廣 商功 均輸 盈朒 方程 句股 등 아홉 가지가 있다)니라. 이 세가지 일을 小學童子의 程度에 맞도록 가르쳐 씩이 보이면 將次 有用한 人材가 되도록 천거하는 것인가 한다.

「鄉에서 八刑으로 萬民을 糾察하였으니 一은 曰不孝之刑이오 二는 曰不睦之刑이오 三은 曰不婣之刑이오 四는 曰不弟之刑이오 五는 曰不任之刑이오 六은 曰不恤之刑이오 七은 曰造言之刑이오 八은 曰亂民之刑이니라.」 하였다. 앞서의 六德에 反하는 行爲를 하거나 妖妄한 말을 造作하여 말하는 것과 邪道 등으로 百姓을 混亂하는 行爲 등은 刑罰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제 成童이 되어 是非善惡을 分別하게 되었으므로 既成社會의 政治的制裁로 勸善懲惡의 일을 竝行하고 있음을 直接 見聞하여 學問修治의 資助로 삼으며, 違悖스러운 行動이 있을 때는 亦是 應分の 處罰이 없을 수 없음을 이룬 것이다.

以上은 中國의 古代 小學教育을 現行小學에 依據하여 대강 紹介한 것이다. 知行과 德性教育을 兼備한 것인가 한다. 다만 朱子도 말했듯이 小學工夫는 事物으로써 가르치고 大學工夫는 小學에서 事物上에 나아가 直接 行動으로 修習한 것에 對하여 왜 그러한가 그래야 하는가 하는 理致를 가르치는 것이다. 朱子는 또 「教之以事하면 不知不覺中에 저의 마음이 涵養되어 자연히 좋아진다.」고 하였으니 性格形成의 方法의 一端을 端的으로 말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顏氏家訓(北齊의 顏之推撰이니 二卷으로 되어 있다)에 曰 教婦는 初來時에 하고 教兒는 嬰孩일 때에 한다. 그러므로 그 始初를 삼가는데 있으니 이것이 이치이다. 만약 子之初生也에 尊卑와 長幼의 禮를 알지 못하게 하여 드디어 父母를 侮罵하고 兄姊를 때리는데 이르러도 父母는 (사랑에 가리워져서) 꾸짖어 禁制할 줄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귀여워) 웃으면서 이를 권장한다. 이러한 속에서 成長하는 皮어린이는 이미 好惡을 分辨하지 못하지만 禮는 분명하므로 더욱 長成하는데 미쳐 그동안의 習慣이 벌써 性格을 形成함에 이르러 禮에 어그러진 뒤에야 그제서 怒氣를 發하

여 禁止하여도 制裁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이쯤 되어서 아버지는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은 아버를 원한하며 殘忍悖逆함이 이르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것은 대개 父母가 深識과 遠慮가 없어서 隱微할 때에 防止하고 漸進하는 것을 杜絶하지 못하고 小慈에 陷溺하여 그 악성을 養成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말 중에 나타나는 처음에, 어렸을 때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과 防微杜漸의 惡習除去方法 등은 實로 小學教育의 要諦인가 한다.

許衡(元의 程朱學者, 字中平, 號는 魯齋)은 「小學之書를 나는 神明과 같이 믿으며 父母와 같이 恭敬한다.」고 하였으며, 李朝의 儒學者 金宏弼(1454~1504, 號는 寒暄, 戊午士禍에 被刑됨)은 小學童子로 自處할 정도로 小學을 精讀篤行하였다.

「朱子は 小學과 大學의 工夫는 截然히 둘로 各斷되는 것은 아니라 하고 小學工夫를 失期하였으면 大學工夫를 하기 이전에 어려운 일이지만 小學工夫를 補填하여야 하는데 要는 다만 莊敬과 誠實을 닦아 學問의 基本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小學工夫의 要目이 誠敬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제 小學에서 性格形成을 하고 基礎學文도 하였으니 大學의 格物致知學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나 性格固定의 第二期인 思春期教育을 大略 論及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여 다음으로 미루겠다.

## 6) 사춘기 교육(15~20세, 제2기 성격고정시기)

思春期는 女子가 男子보다 조금 빠르고 12세 13세경에 온다고 한다. 「15세면 天子의 元子와 衆子 및 公卿大夫元士之適子며 凡民의 俊秀한 者는 모두 大學에 入學한다.」고 朱子は 大學序文에서 말하고 있으니 이때는 學問도 相當하고 性格도 어느 정도 形成固有化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도 本然之性을 涵養하고 氣質을 變化하여 善德을 成就하지는 못하고 或은 知的으로 未確實하여 疑訝하거나 行的으로 阻礙되는 것이 生하기도 할 것이며 或은 天理가 未定한데 物欲의 侵攻과 衝動을 받아 搖動되기도 할 것이며, 或은 交友의 誘惑을 받거나 幻想에 사로잡히는 등 善惡의 岐路에서 彷徨하는 수가 없지는 못할 것이다. 하물며 이때는 身體的으로 成人비슷하게 發達되었으므로 精神的으로는 오히려 不安定하고 輕率하기 쉬운 狀況에 놓여있으므로 이제까지 形成되어온 性格의 長點마저도 잘못될 念慮가 없지 않다. 그리고 잘못 形成된 性格은 마치 불에 기름을 치듯이 더욱 惡化되어 나아갈 公算도 크다. 이러한 狀況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때의 性格形成과 性格을 固定시켜 주는 方法은 무엇일까?

### (1) 過去 現在 未來의 一貫繼續

本然之性을 涵養하고 氣質을 變化純成하여 誠直하고 恭敬하고 仁慈하고 義理롭고 禮讓하고 物慾없고 마음이 清明하고 寬廣하여 知慧롭고 忍耐하고 勤儉勉勵하며 責任있고 正當하고 創意的이고 積極的인 性格은 實事物에 나아가 修鍊習熟하는 속에서 스스로 알지 못하는 中에 形成固有化되도록 教育하여온 것이니 이는 過去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現在로 이어지고 無窮한 未來에 까지 進展推擴되지 않을 수 없다.

### (2) 立志

15세까지 正常的인 教育을 實施하여 왔으면 性格도 거의 形成固有化되었고 素質도 相當히 浮刻되었으며 見聞도 있고 未來에 대한 希望과 憧憬도 胸中에 물결쳐 往來할 것이다. 自主的으로 어떠한 目的을 想定하고 이를 向하여 不退轉의 立志를 해야 한다. 이때는 2分정도의 父母의

協贊參與가 있으면 適合하리니 萬若 子女의 自發的인 決心에 依하지 않으면 始終一貫하기는 어렵다. 孔子도 「十有五而志于學」이라 하였으니 이는 必然코 格致成正 修齊治平의 大學之道를 向한 立志일 것이나, 學問分野가 多樣化한 現今에 와서는 全人的 人格形成은 原則이니 말할 것 없이 包含되어야 하고 보다 具體的으로 志向을 定立하여야 좋을 것이다. 立志가 되면 性格의 固有化도 더욱 形成되어갈 것이다.

### (3) 示範教育

父母는 家庭에서의 模範이고 師는 學校에서의 模範이다. 다만 學問과 德行이 竝行하여야 效果를 올릴 수 있음은 勿論이나 그것도 表象的 知識이나 形式的 嘉言善行의 喧噪的 說得과 貫注 反覆의 效果를 奏하는 原因이 되는 自然히 至道相感하는 無聲無臭의 德으로 하여야한다. 多情한 少年은 善知善行이 主張으로 定立되면 外邪를 揮斥克服하는 底力이 될 것이다. 그러나 父母는 德化의 面이 많고 學校에서는 知識的인 面이 많은 것이 現今의 實狀이나 古之師道가 學德兼全의 師道를 指標로 삼는 이상 이를 본받아 家庭과 學校는 相互 緊密한 連絡을 하여 補完해 나가야 한다.

### (4) 眞理探究

事物의 所當然之則과 所以然之故를 格物致知하여 眞理를 찾고 이에 反하는 것은 非眞理로 認識體得함으로써 이제까지 形成된 德行의 正當性을 辨證한다. 이러한 중에 性格의 固有化가 된다.

### (5) 價値觀의 定立

眞理를 찾으면 自然히 是非善惡이 整理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是善을 取行하고 非惡을 除去不爲하게 되어 社會의 現實相을 冷徹하게 觀察分明하여 價値를 追求하게 된다. 價値觀은 普遍妥當性을 세움과 同時에 具體的特殊性도 竝行而不相悖하도록 하여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盛德君子를 向하여 性格의 固有化를 이루어 나아가는 일이다.

### (6) 交友

人格을 養成함에 있어 家庭外의 사람으로서 가장 重要한 것은 師丈과 友人이다. 그러므로 學德이 兼全通透한 사람을 擇하여 就學하고 交遊하여야 한다. 孔子는 益者三友요 損者三友라 하여(論語) 益友를 取하고 損友를 멀리하라 하고, 또 無友不如己者라 하여 나보다 優勝한 사람을 取友하게 하였으며 交友를 善히 하는 方道로서 久而敬之(論語)를 들었다. 이 時期에 있어서 性格形成의 半分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리만큼 朋友가 주는 影響은 莫大하니 어찌 指導가 없을 수 있으리오.

### (7) 良書

讀書는 性格을 形成함에 있어서 重要한 功能을 擔持하고 있으니 性格을 具備하는데 資料를 提供하여줄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을 矯正하고 잘된 것을 涵養固有化 하는데 至大한 影響을 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하물며 先入爲主의 主張이 아직도 流動的인 時期이고 感受性이 敏捷함이겠는가. 聖經賢傳을 探究할 뿐 異端雜書는 가까이하지 않아야한다. 小學에는 「二十而冠하여 始學禮하며 可以衣裘帛하며 舞大夏하며 悖行孝悌하며 博學不教하며 內而不出이니라.」 하여 20이면 加冠의 成人이 되었음을 言明하고 이에 相應하는 教學으로 禮帥初이니 學幼儀 등 禮의 初步的 習事的 圈圍內에서 進歩하여 비로소 五禮를 學習하되 더욱 學問的으로 推究하며 우리

風習의 口傳之敎에 따르면 「男兒는 너무 덥지 않게 하고 女兒는 따스게 길러야한다.」 하는데 이는 생각건대 陰陽의 氣運을 調和하는 意味인 것 같다. 小學에는 (男兒) 10세면 「衣不帛襦袴」라 하여 繒帛의 太溫함을 禁止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20세의 靑壯期에 와서 裘帛을 勸獎하는 듯한 것은 왜일까? 아마 幼少時는 體質格을 強靱하게 養成하기 爲함시오 成年體質에 와서는 도리어 成長된 陽氣를 隨宜保護하는 것이 妥當하여서인가 한다. 舞大夏도 大夏는 禹樂으로서 文武를 兼全한 것이니 13세에 文舞로 舞酌하고 15세에 武舞로 舞象하였지만 이제는 成人으로서 竝行하는 것이다. 成人이 되면 成人의 孝道가 있으니 이제까지의 孝悌知行을 더욱 深化極盡到底하여 자칫 懈怠하기 쉬워짐을 警戒하는 뜻이 보인다. 孝經에 따르면 孝에는 始中終이 있다 하였으니, 童子之孝 成人之孝 凡夫之孝 大人之孝 形氣之孝 義理之孝를 曲盡하여감을 뜻한다. 博學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孔子도 40에 不惑하고 50에 知天命이라 하였으니 어찌 溫故而知新하여 具道를 體得하지 않고서 輕率히 남을 가르치겠는가. 이때야말로 學問을 넓고 깊게 하여 知行으로 닦은 美德을 中心에 蘊蓄成就하기를 努力할 때이지 決코 一德이나 未完의 德을 容易히 表現自矜함으로써 大道晚成을 害쳐서는 안 된다. 이는 모두 아직도 良書一邊의 善端內에서의 博學養德이니 그러므로 30세에 가서야 「博學無方」이라 하여 善이면 常師가 없이 從學하여야함을 말하였으니 이는 흔들리지 않는 自我의 定礎를 前提로 한 것인 만큼 善惡正邪를 明辨하기 爲한 學問的 涉獵이 許容되는 뜻이 보이는 듯하다. 아무튼 이 時期는 是非善惡을 究明하는 것이지 決判지우며 主張發用하기에는 아직도 이르며 善을 與我一體 固定化하는데 主力해야할 것이다.

#### (8) 溫厚鄭重

20이전의 靑少年男女는 아직도 流動的이고 衝擊的이며 眞理의 圓滿性보다는 偏見에 빠지기 쉽고 따라서 一方的 義憤心과 不義와 妥協할 줄 모르는 正義感으로 因하여 輕率하기에 이르는 수가 많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父母兄弟 師友와 充分한 事前論議를 하는 이른바 民主的方法을 거치는 慎重性을 길러주어야 한다.

#### (9) 健康指導

健全한 身體에 健全한 精神이 宿生한다는 말은 心與氣 形與神의 一而二 二而一인데서 飲食衣服의 醫學的 調和라든가 適當한 運動으로 身體를 鍛鍊한다든가 등 形而下的인 健康과, 物慾을 克去하고 格物致知와 誠意正心の 學問之切으로 誠意正直하여 浩然之氣가 充溢하고 吾心이 廣大貫平 泰然自若함으로써 言動處事가 從容中道하게 하나니 於是乎 內外須資 動靜一貫 心身一致의 참다운 健康指導가 이룩되리니 性格의 形成과 固有化가 여기서 渾然成就되지 않으리오.

#### (10) 衣食之艱

衣服飲食을 爲始하여 生活必需品等の 生産製作의 艱難한 實情을 確實히 認識體驗하여 物品에 對한 感謝와 適時適用하여 濫用과 奢侈의 罪됨을 알게 한다. 하물며 얻으면 살고 잃으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不義로운 것은 얻어서 苟且偷生하지 않는 어려움을 實驗眞知하게 하여 좋은 性格을 이루도록 한다.

以上으로써 第二期의 性格固定化에 對하여 若干 論하여 보았으나 아직도 많겠지만 省略하고 다음은 思春期의 男女問題 性敎育에 對한 管見을 略論하겠다. 昨今 性敎育은 世界的으로 舉論되어 여러 가지 方法에 따른 指導敎育이 實施되고 있는 實情이다. 果然 性敎育은 公開的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自然대로 놓아두어야 할까?

男女의 結合인 性은 人間繁殖의 手段이고 飮食은 生命維持의 手段이다. 飮食이 없으면 人間은 生存할 수가 없고 繁殖이 없으면 絶種되지 않을 수 없다. 飮食이 個體의 生命을 保存하기 爲한 것이라면 性은 全體의 生命을 保存하는 것이며 飮食은 有限生命을 生養하는 것이라면 性은 無限生命을 營爲하는 일이다. 性과 飮食을 目的的으로 보면 이리하지만 感覺的으로 보면 飢欲 渴欲 飮하며 精盛 思室함과 같이 自然發生의 이거나 見物生心인 遇事衝擊的 形氣之慾의 妄作인 境遇도 많다. 飮食과 男女 그것은 目的的이든 自然發生的이든 私欲的이든 要는 外的強要에 依하는 것이 아니고 無意識的 盲目的 積極的인 自我發露이다. 自我自然發露이기에 그것은 바로 生命體 그대로의 그 自身이며 本能이므로 둘은 둘이 아니고 하나의 生命이며 生命慾이라고 統一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食色은 人生 또는 모든 生命體의 形氣的 兩大主軸이니 孟子도 人生은 食色機關이라고까지 하였다.

性이 飮食과 같은 生命慾 生命體 그 自體일 때 그것은 決코 隱蔽되거나 秘藏될 性質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公然되고 開放的인 것이 本然性的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性教育은 當然하지 않은가. 人生이후 사오세가 되어 무엇이든지 묻기 시작할 때 나는 어디로 낳는가? 어떻게 해서 낳는가? 나는 왜 남자이고 왜 여자인가? 나는 왜 성기가 이렇고 저애는 왜 저런가? 등등의 질문을 받았을 때 무어라고 대답할 수 없어 찢찢매느니 보다는 차라리 자연스럽고 정도에 맞고 그러면서도 거짓이 아니게 알려주며 장성함에 따라 또 거기에 알맞게 교육 지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즉 알려진 사실이니 또한 비밀될 것이 아니니 궁극을 풀어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이 性을 바르게 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意圖下에서 하는 性教育은 果然 어떠한 結果를 가져올까? 생각하여 보건대 性의 歷史的發展은 男女結合은 古今이 다를 바 없겠지만 그 樣相은 文明의 進度에 따라 달라진 것 같다. 太初의 原始社會에서는 巢棲穴住하고 草根木皮에 自然果實이며 鳥獸 등을 取食하고 살았으며 雌雄이 配合하여 生産養育하였을 것이다. 動物的인 生活속에도 天理가 있고 天理가 있음으로써 動物的인 生活도 可有이지만 人文이 宣朗하지 못한 때는 動物的인 生活로부터 시작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混淫群居하는 그 時代도 決코 無限히 存續되지는 않고 不變속에도 可變이 變化속에도 不可變이 相隨相化 二而一 一而二의 法則속에서 變革되어 나가지 않을 수 없으니 本來 物之不齊는 物之情也라 하여 莊子の 齊物論의 不當함은 말할 것도 없이 人類自體만 하여도 氣質의 差異는 無限하다. 自由放任의 原始社會에도 智愚賢不肖며 剛柔善惡이 없지 못하므로 畢竟은 支配者和 彼支配層으로 分立되고 만다. 여기서 邪惡한 私智와 強惡한 힘을 가진 자는 弱者에 君臨하여 飮食과 女色이나 男色을 제멋대로 橫暴恣行하여 獨占한다. 弱者는 强者에게 衣服과 飮食과 色을 바쳐야하고 自身은 헐벗고 굶주리다 죽으며 허구 많은 사람이 異性도 모르고 살다갔을 것이다. 이러한 狀態下에서 一次的으로 나타나는 現想은 母系社會이다. 家庭을 形成하지 않았으므로 一妻多夫가 되지 않을 수 없으니 陶唐氏니 有虞氏니 하는 것이 母系の 氏族이오 이는 大體로 中國에서는 B.C.1100年頃의 周의 建國以前까지의 狀況이었던 듯하다. 母系社會 또한 恒常 不變만은 아니니 그중에도 强者는 多數의 男子나 女子를 獨占하고 他者는 近接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임에 母系는 점차 父系社會로 바뀌어가지 않았을까 한다.

母系社會의 一妻多夫는 父系社會에서 一夫多妻의 正反對現象으로 進展되어갔다. 强者의 獨占

多妻는 母系社會에서도 自然히 나타났을 것이지만 父系社會가 되면서 女權은 沒落되고 男子萬能이었다. 勸力과 金力を 가진 자들 所謂 强者로부터 形氣之慾의 產物로서 생겨난 것이다. 女子는 形氣的으로 弱者이니만큼 一切의 負擔을 定해 놓고 男性은 그 위에서 제 마음대로 妻妾을 거느리고도 그것이 當然한 天理인양 獨善的 強辯을 늘어놓는다. 女子만 不更二夫라 하여 貞操의 貴함을 價値롭게 여기고 男子는 此限에 不在이니 男女間에 본받을 것이 무엇일까? 有史以來의 聖君이니 賢者니 하는 따위의 大部分은 이 性的側面에서 考察하여 볼 때 저 一夫一妻의 平和로운 生涯를 한 사람에게 比하면 強惡無道 性的墮落者라고 極言하지 않을 수 없다. 男女平等의 貞操觀이 定立되는 것이 天理當然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父系社會의 逆天理도 不變의 眞理가 아니요 隨時變易之理이므로 그대로만 있을 道理는 없다. 이제 原始社會도 母系社會도 父系社會도 모두 겪었으니 어디로 歸著하게 될까? 모든 人間은 平等하다. 主體的人格者임에 있어 그 누구도 優越性이 인정되지 않는다. 強弱賢愚며 男女의 差異가 있다 해도 人道主義的 基本權에는 何等의 差異가 없으니 이 眞理를 破壞하는 者는 大體로 强者이니 强者가 强者로서 해야 할 天命의 本然的 責務를 다하지 않고 基本權을 侵害蹂躪할 때 家庭과 社會는 紊亂하게 된다. 어찌 男女의 貞操觀이 偏僻되게 다루어질 수 있겠는가. 男女平等은 當然히 一夫一妻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天地陰陽男女는 一與一이 습하여 二가 되고 二가 도로 一이 되나니 이 以外에 또 다른 配合는 逆天이 된다. 一夫一妻는 이와 같이 天道之當然이니 이는 始終不變의 眞理이므로 비록 可變的 世界가 原始이든 母系이든 父系이든 恒常 이와 같은 것이다. 이제야말로 一夫一妻時代이나 아직은 父系中心의 일 것이니 오랜 후에는 또다른 樣相으로 변해갈 것인가 한다.

却說하여 性教育은 一言以蔽之하면 性的原始社會로의 前進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疑懼하는 바이다. 이러한 杞憂라도 해서 性教育의 弊端點을 막을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을는지. 아무튼 性教育의 贊成者들은 그만한 研究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글썽 아무리 그들이 人間의 神聖性을 얼마나 아는지 理智的 動物임을 얼마나 믿는지 알지는 못하겠으나 그러나 어떠한 聖者도 人間의 動物的 動物의 側面이 있음을 否定하지 않는 正見을 가졌다면 이것이 男女의 純粹한 童精을 害치고 一夫一妻의 天理를 逆流시킬 것은 決코 杞憂가 아닌 必然的 自明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일은 公開되면 될수록 教育하면 한만큼 逆效果가 날 뿐이다. 어떠한 強力한 法律을 가지고도 道德規範을 가지고도 그 害毒을 막지는 못한다. 設使 그 始初에 있어서 初步的 常識的 皮相的 乃至는 教育的 教育을 한다하여도 及其也는 實際的 露骨的 高級的인 것으로 進行하여 窮思無測 駭怪妄想하여 그칠 줄 모르는 深刻한 事態에 이르고 말 것이다. 하물며 性慾은 食慾과 함께 人間의 二大慾望이요 生命慾으로 統一된다고 하였지만 食慾은 外物을 攝取하여 生命을 保存하려는 것인데 反하여 性慾은 自我를 損壞하면서까지 第二世를 生産하는 決死的 犧牲的 生命慾의 發露이니 窮極的으로 말하면 食慾보다 더한 것이다. 그러므로 飲食에 對한 教育과 다르다. 나는 이제까지 國民學校에서부터 性教育을 하되 直接的인 것의 不可함을 力說하여 왔으나 決코 性에 對하여 等閒히 하려는 意味는 아니고, 아니 그들보다 더욱 教育의 重要하고 切實하여 不可缺한 것임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方法의 教育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 愚陋之見을 概舉하면

儒學에서 論하는 理와 氣를 學者들이 흔히 理性和 感性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는 것을 種種

見聞하는데 이것을 西洋哲學的 概念으로 使用하지 않는 이상 그런대로 아직 肯定하여 본다. 그래서 여기서는 一旦 比準될 수 있는 말로 간주하여 並用하겠다. 人間은 본래 理와 氣로 되어있으므로 天理와 形氣 理性과 感性을 享有하고 있다. 智愚賢不肖의 區別은 大概하여 얼마나 氣質이 淸粹한가 그리하여 本然之性이 主人노릇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理性과 感性 둘 중에 어떤 것이 主宰하고 어떤 것이 使役되나 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誠意正心の 修治之學에서는 理氣의 本質을 밝히고 抑氣顯理 理主氣客 理發氣隨 理氣一致의 教育을 한다. 萬若 氣의 本質을 充分히 밝히지 못하여 氣主理客으로 삼거나 唯氣無理의이 된다면 窮極的으로는 感性的 人間으로 化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 더욱 危險한 것은 理氣의 本質上 天理를 高揚하고 人欲을 克除하는데 渾身의 精力을 경주하여도 斯忽之間에 客反爲主 邪欲에 陷入하는 경우가 許多한데 하물며 直接的 形氣爲主의 教育을 한 대서야 어찌 有爲之氣가 無爲之理를 遮蔽無力하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孟子는 遏人欲存天理를 主軸으로 하되 所以異於禽獸者幾希라 하여 그 어려움을 말하고 養氣說과 存心養性論을 폈으며 大學은 格致誠正之說을 이르고 孔子는 克己復禮를 가르쳤으니 이는 모두 氣의 危險性을 認識하고 이를 變化하는 方法으로 天理를 밝히고 行함으로써 無意識中에 氣質이 變化되도록 하는 間接的 醞釀工夫이다. 惡을 惡으로 氣를 氣로 다스리려는 것은 姑息的 短見이요 다음 段階의 倍惡을 招來하는 過渡期的 策略에 不過한 것이다. 況 도리어 氣를 昇華하는데 必至하여 滅天理로 몰고 가리니 이 어찌 極本窮源의 堯舜孔子가 하는 大德敦化의 教育이라. 그러므로 性教育은 一夫一妻의 天理됨과 男女同等의 人格性和 男女의 純粹한 童精으로 만남의 珍貴한 價値性을 深廣하게 밝힘으로써 이를 淨化하는 間接的인 方法이 바람직하다고 確信한다. 이와 같이 天理를 밝힘으로써 氣的 人欲의 發生을 根源서부터 防止克除하면, 原始니, 母系니 父系社會에서 있었던 非理는 자취를 감추고 一夫一妻의 眞理가 行해질 것이며 人格同等의 原則이 維持됨으로써 男女隨分의 能力을 發揮하여 相互協同奉仕하는 家庭과 社會를 이룩하게 될 것이며, 더욱 至誠은 感天이니 夫婦의 結合은 神聖한 것이라 相互間 一毫의 欺詐도 介在하여서는 眞正한 一夫一妻 誠感의 天理的 價値있는 家庭은 바라 기대하기 어렵다. 男女의 始終 永遠徹頭徹尾한 純精의 結合을 原理로서 高揚闡發하고 既成世代인 社會와 爲人父母者가 有恥且格의 奮發로써 模範을 보여 나아간다면 이 어찌 理想的인 性教育이 아니리오. 하물며 性은 人間의 良知良能에 屬하는 事項이라 自古로 그런 式의 性教育이 없었어도 어찌 人間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모르겠으며 또한 몰라도 靚찮을 시기에 모르는 것이야 오히려 당연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이는 性教育 自體를 否定함이 아니고 方法的 差異를 말한 것일 뿐이니 性的 醫學的 健康管理分野를 排除함도 또한 勿論 아니나 이 亦是 適時的이어야 할 것이다.

要컨대 性教育은 既成社會人의 示範을 主로한 教育이어야 하고 氣的이거나 非適時的이어서는 直接 間接을 莫論하고 不可하다고 結論짓는 바이다.

끝